

정의화 국회의장 “26일 본회의서 법안처리”

의사일정 시간표 제시...오늘부터 상임위 활동

야, 강력반발 ‘반쪽국회’ 불보듯...장기파행엔 부담

정의화 국회의장이 16일 정기국회 의사 일정을 직권으로 발표해 장기파행 중인 국회가 정상화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 의장은 이날 발표한 의사일정에서 17일부터 상임위 활동을 시작으로 본회의(9월26일, 10월31일), 교섭단체대표연설(9월29~30일), 국정감사(10월1~20일),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10월 22일), 대정부질문(10월 23~28일) 등의 시간표를 제시했다.

이수원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장은 어려운 대내외적 상황 속에서 산적한 민생현안을 눈앞에 두고 국회를 계속 공전시키는 것은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으로 보아 의사일정을 최종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의장의 고뇌에 찬 결단을 환영한다”면서 “의사일정에 맞춰 민생경제, 규제개혁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챙겨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발하고 있어 보름 넘게 공전해온 정기국회는 앞으로 도 파행 운영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 새정치연합이 박영선 원내대표의 탈당 문제를 포함한 내용에 시달리고 있어 현실적으로도 국회 의사일정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적어도 당분간은

여당만 참석하는 ‘반쪽 정기국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의장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한 5차례의 선례 중 1차례는 여야 합의한 뒤 형식상 문제였고, 그 외 4건은 10년 전 사례”라며 “(그 이후) 의장이 본회의 일정을 정해 안전을 상정한 사례는

날치기 통과, 직권상정을 제외하면 전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 수장과 거대 집권 여당이 제1야당이 어려움 겪는 이 시기에 독단적·일방적 국회 운영을 자행하는 것은 제1야당에 대한 모멸이고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여당인 새누리당만 단독으로 상임위를 소집해 법안과 예산안을 심의에 착수하는 등 정기국회를 가동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당 협조 없이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각 상임위에 계류된 주요 민생·경제법안 통과에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나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등도 모두 김빠진 ‘여당만의 잔치’에 그칠 공산이 크며, 당연히 부실 논란도 뒤따를 전망이다.

다만, 새정치연합도 끝까지 의사일정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는 사실상 야당의 대정부 견제를 위한 수단이고, 내년도 예산안도 올해부터 11월 30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상정되는 등 국회 장기파행 부담으로부터 야당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의화 국회의장(왼쪽)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의정실에서 국회 일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非朴혁신위’ 순항할까...親朴 “일단 지켜보자”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본격적인 쉼표에 나설 예정이라서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 김부성 대표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규제개혁특별법 공청회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는) 6개월 간 당내 특별기구로 출범하게 된다”면서 “특위 위원들은 개혁논의를 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하고 외부에서 쓴 소리를 할 수 있는 인사를 몇 분 모시려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혁신위원장을 맡은 김문수 전 경기지사에 대해 “오랜 동지로서 친구로서 지켜봤는데 현재 새누리당의 지도자 중 가장 개혁적 마인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번 주 내에 혁신위 구성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다음주부터는 혁신위가 제대로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대표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김문수 위원장이 진두지휘할 혁신위 마련 작업이 순탄하게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김 위원장이 비박(비박근혜)계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지난 당직인선에서 이근현 사무총장을 비롯해 옛 친이(친이명박)계 등 비주류를 전진 배치한 데 이어 당의 새 판을 짜는 혁신위에 비주류인 김 전 지사를 기용해 주류로서는 편치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선 ‘비박 혁신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친박 진영에서는 일단 말을 아끼고 있다.

마음이 편치는 않지만 김 대표가 친박 진영과 적절한 소통을 했다는 점에서 드러

내놓고 반대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공천 개혁 등을 포함한 혁신안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면 이를 둘러싼 주류와 비주류의 충돌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김 대표 친정체제가 점차 강화되면서 친박 진영에서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당장 이날부터 시작되는 현역 국회의원 지역구에 대한 당무 감사에서 친박 진영 위원장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혁신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도 변수지만 근본적으로 친박, 비박 진영의 불신감이 크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결국 친박과 비박의 갈등이 잠복해 있는 상황에서 혁신안은 새누리당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낙연 전남도지사

특보·고문 9명 위촉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특별보좌관(특보)과 고문 9명을 위촉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경제특보에 권오봉 전 전남도 경제부지사와 신주호 리소스네트웍스 코리아 대표, 정무특보에 이남재 전 순창군 대표 비서실 차장과 황정호 전 전남도의원, 중소기업특보에 양지문 전 민주당 중소기업특위 부위원장, 여성특보에 천순애 전 여주시의원, 노동특보에 이대길 한국노총 여주시지회장 등 특보 7명을 각각 위촉했다.

이 지사는 또한 농업정책고문에 이덕수 전 농협 농업경제 대표이사과 박현철 전 농촌진흥청장을 위촉했다.

전남도지사는 조례에 따라 특보와 고문을 각 8명 내외로 위촉할 수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정가라운지

박주선 “광주지역 문화재 48곳 보수·보강 필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16일 광주지역에 보수와 보강 등이 필요한 문화재 상당수가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가 지정문화재 128점에 대해 최근 7년간 1101회(누적횟수)에 걸쳐 점검한 결과, 수리·복구·정비 등이 필요한 문화재는 모두 48건에 달했다.

더욱이 광주시는 문화재 정기 조사 의무를 규정한 관련 조례도 정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지난 2005년 양양 낙산사 화재 이후 국가 및 시도 지정문화재는 5년마다 정기조사를 해 체계적인 보수와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률 개정이 이뤄졌으나 광주시는 아직도 후속 조례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병완, ‘구글 독점, 국내ICT 역차별 실태 토론회’ 개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역차별 실태와 반독점 규제 마련을 위해 ‘구글 독점, 국내 역차별 한국 ICT현실과 해법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장 의원은 “이번 행사는 구글 선택제 앱 등의 국내 기업 역차별로 인해 기업

의 활동이 위축되고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짚어보고 정부와 ICT 전문가 및 관련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형평성 있는 반독점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 열린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

지방정가

정의당 광주시당 조직개편...위원장에 강은미

정의당 광주시당은 지난 15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장화동·강은미 공동위원장 체제를 강은미 1인 위원장 체제로 전환하고, 신임 사무처장에 최윤환 당원을 인준했다.

시당은 또 진보적인 정책 생산을 위해

정책위원회를 설치, 광주시정에 대한 견제와 대안 제시, 시민 생활에 유용한 실용적 정책연구 등을 해나가기로 했다.



문상필,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본회의 상정

문상필(새정치·북구 3) 광주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16일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문 의원은 “교육행정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해 시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발전을 이룩하고 ‘마음이 학교이고, 학교가 마

음이 되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광주시 교육지원청과 자치구 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협의하는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김옥자 “시교육청 예비비 사용 적절치 못해”

김옥자(새정치·광산 3) 광주시의원은 16일 “불가피하거나 긴급히 예산이 필요한 경우 사후 승인을 전제로 사용하는 예비비를 시교육청이 시급하지 않은 방수공사 등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2013 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서 “최대 전력 관리장치 설치와 방수공사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예비비를 투입할 만

큼 시급한 사항이 아니었다”고 질타했다. 결산자료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예비비로 최대 전력 관리장치 설치에 5억5300만원, 방수공사에 9억4300여 만원을 사용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예쁜사람은 많다
돈 많은 사람도 많다
정신이 맑고 마음이 예쁜사람도
많았으면 좋겠다.
나눔과 배려가
세상을 바꾸듯이
신협이 예금과 대출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 비과세 예금 3,000만원 (1인당 예금보장 5,000만원)
- 대출최고한도 28억원 (최저금리 3.8%)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금호지점/중앙지점

하반기 부동산 대전망과 실전투자 전략세미나

99% 적중률 최고의 부동산 실전전문가 김영표 대표가 말하는 소액으로
센처럼 솟아나는 월세나오는 부동산을 찾아서...

종자돈 3천~1억으로 부동산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장 소	NC백화점(구.현대) (10층 문화센터)
일 시	2014. 9. 17. (수) 2시 / 7시 선택
문의전화	062)383-1330 (사전 예약)

강/의/내/용

- ① 하반기 및 2015년 부동산 트렌드 분석 및 투자전략 대공개
- ② 광주·전남지역 부동산 흐름 및 주택시장 투자 전략 공개
- ③ 도시 대전망·도시 가치변화에 따른 개발지역 투자 포인트 해법공개
- ④ 3천~1억 소액투자자로 월세 받을수 있는 투자지역 매물 추천

김영표 부동산 실전투자 전문가

(현) 영지R&D 부동산연구소 대표
(현) 영지부동산 아카데미 대표
(현) 각종관공서 및 대학교 초빙 특강 강사
(현) 전국 순회 부동산 세미나 80회 이상 강의
(현) 롯데백화점 및 각종 백화점 문화센터 특강 강의

NAVER 영지R&D부동산투자연구소 검색

상상할수 없는 파격조건!! 동성노블리 특별분양!!

전세가격 폭등!! 차라리 내집을 사자!!
용봉동 동성 노블리 3차

● 빠른입주 2014년 11월 (예정)
● 중도금 무이자
● 공급면적 (㎡) 78/75

● 선착순 마감입박

한자리에서 북구의 모든 실속을 누리려!

- 1 실업준급 2천만원대(최소 금액으로 입주가능)
- 2 분양가의 80%까지 대출 가능
- 3 용봉IC 양방향 공사 예정(불편한 교통환경의 해소로 인한 미래가치 상승 요인)
- 4 전·월세 보증금으로 내집마련(2,000~4,000만원대)
- 5 일국형층아파트 총 1,400세대 분양전환으로 인한 임대수요 풍부

● 위치 용봉(순천방항) 용봉현대아파트 앞

● 분양문의 062) 385-3080